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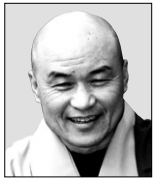
미안마 광명초교 개원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11월 8일 미안마 '아난다미다 광명초등학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장보살점안식
안양교도소 불교위원회 위원장 현성 스님(도선사 조실)은 10월 29일 안양교도소에 지장보살상 점안식을 열고 재소자 찬불독경대회를 개최했다.



성준 스님 추모다례제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11월 7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성준 스님 35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다.



봉은사 음력초하루 법회
순천 송광사 前주지 영조 스님은 11월 14일 음력 초하루를 맞아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법문한다.



조선왕실의례 환국 1주년
문화재재단차릿기 대표 해문 스님은 11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조선왕실의례 환국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사랑의연탄배달 봉사활동
김희욱 동국침사사람봉사단 단장(동국대 총장)은 11월 10일 중구일대에서 동국대 학생들과 사랑의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민주열사 천도제
우희종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는 11월 16일 서울 달마사에서 민주열사 천도제를 봉행한다.

“정성을 다해 사회복지 귀감 될 것”

수덕사노인요양원 개원한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지역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년을 보살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수덕사(주지 지운)가 10월 31일 수덕사노인요양원을 개원하고 지역복지사업에 적극 뛰어들었다.

노인요양원을 설립한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이날 “가족이 있어도 여간상 어려움으로 모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노년을 따뜻하게 보내고 행복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보살핌이 가능한 요양원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수덕사의 이번 노인요양원 개원은 노인복지에 대한 지역 수요가 급증하는데 따른 것이다. 수덕사는 이미 2006년부터 예산군이 설립한 예산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예산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32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등 600여 명의 지원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수덕사의 노인요양원 기공식은 부지 선정문제로 난항을 겪은 끝에 이뤄져 더욱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산군 덕산 광천리에 자리한 수덕사 요

양원은 2010년 12월 착공한 이래 총 2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부지 3641㎡, 연면적 1493㎡, 건축면적 720㎡, 지상 2층 규모로 완공됐다. 1층에는 사무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간호사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생활실 11개와 휴게실 등이 마련됐다. 60명 정원에 현재 43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지운 스님은 “수덕사의 복지활동 참여는 불교위상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요양원 개원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 전개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지운 스님은 수덕사와 각 말사에서 모금한 ‘나누면 복돼지’ 저금통을 수덕사노인요양원에 전달했으며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 점심공양과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스님은 끝으로 “사명감을 갖고 사회복지에 귀감이 되는 요양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으로 포교 원력 다짐”

제24회 포교대상 시상식 개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운)은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24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장에서는 포교대상 수상자인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 공로상 수상자인 한마음선원 주지 해원 스님, 직지사 총무 장명 스님, 경주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 이원희 범어사 신도회장 등 4인, 원력상 수상자인 대전 용화사 주지 영진 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안직수 수원불교청년회장 등 11명과 500여 사부대중이 모여 포교원력을 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대상 시상식을 계기로 한국불교 중흥 계기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 다람살라 방문해달라”

티베트 종교문화성 장관, 자승 스님에게 요청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산하 종교문화성 빼마친 조르(68) 장관이 11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티베트 망명정부 인사로는 최초 방문이다. 전주에서 개최 중인 2012세계순례대회 참석 차 입국한 빼마친조르 장관은 자승 스님과 함께 만남에서 자승 스님의 다람살라 방문을 요청했다. 노덕현 기자

“현실 문제에 적극적인 불교 돼야”

손혁재 교수, ‘불교와 바른 정치’ 강연서 강조

과연 불자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 불교 발전에 바람직한 것인가? 18대 대선에서 불교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사 진)가 재가연대 ‘참여불교 리더스 포럼’에서 ‘불교와 바른 정치-2012년 정치 대통령 선거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손 교수는 “18대 대선은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주춧돌 선거다. 정치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21세기를

이끌어갈 바른 지도자를 선택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손 교수는 불교가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소극적 입장에서 대선은 세속의 일이라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 입장은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결정되고 불교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 씨는 하지만 불자 대통령이 탄생해야 한다든가 불교 공약이 훌륭한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 교수는 이제 우리 불교가 산중 불교 혹은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교의 교리가 고통 속 중생을 구제하는데 잇듯 사회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현실참여의 중요성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제2회 반야학술상 수상자 발표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객만연·박문현 교수)와 반야학술윤영위원회(위원장 지안 스님)는 11월 7일 제2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동아대 교양교육원 김명우 박사



김명우 박사

구자상 박사

창원대 철학과 강사 구자상 박사를 선정했다. 김명우 박사는 유식불교 입문서인 ‘마음공부 첫걸음’을 출간해 지역상을, 구자상 박사는 논문 ‘정토론주에 나타난 신(信)의 의미 고찰’로 논문상을 받게 됐다. 시상식은 12월 2일 오전 10시 양산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한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객만연·박문현)는 11월 24일 오후 1시 부산 안국선원에서 ‘동아시아 불교와 화엄사상’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목정배 교수의 병상일기



나는 부처님처럼 ‘걸음’ 멈출 수 없다

원로불교학자 미천 목정배 교수가 병마를 다스리고 있다. 지난 여름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다녀왔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9월 경 허리가 많이 아파 척추전문의를 찾아 치료했고 침도 맞았다. 10월 2일 일어 서지 못하자 종합병원에 입원, 각종 검사를 받았다. ‘신경성 내분비 장애’ 이란 병명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상계백병원 입원실을 ‘백원정사’라 이름한 목 교수는 간호사가 체크하러 오는 새벽 4시에 기상, 참선에 들었다. 평생 부처님 가르침 속에 불교학 연구와 발전에 기여한 목 교수는 투병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들여다보고 다스리고 있다.

목 교수는 그 느낌을 ‘법사회’ 회원들과 트위터로 나누고 있다. 본지가 그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불자들의 마음공부를 돕고, 나아가 목 교수의 빠른 쾌유를 위해 마음을 모으자는 뜻이다. 목 교수는 11월 5일 퇴원, 자택 미천산방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있다. 편집자 주

10월 2일 | 가을하늘이 해맑게 드높다. 수정구슬이 비추이듯 환하니, 우리 마음도 가없이 씻겨간다.

10월 3일 | 북한산이 보이네. 내가 누워 있는 침대에서, 푸르른 저 산 빛처럼 건강 한 몸으로, 만장부른 굳은 바위가 내 마음이

고 싶네.

10월 4일 | 긴 밤 자리에 누워 아들이 질 어가는 공간에, 그냥 남아 있는 기도탑에, 연꽃 향을 울리고 절하고 싶다.

잠이 달갑게 오지 않는다. 허리 허벅지가 절리어 덩굴잠을 잤는지, 몸이 개운치 않다. 어떻게 병명이 밝혀져 치료가 시작 되면 깊은 잠이 올까.

10월 6일 | 다녀가는 분도 많다. 고마운 마음이 가슴 깊이 깊이 자리 하나. 내 다 시 나으면 그들 마음의 바라밀로, 살아가야 하리라.



상계백병원 병실에서 법사회 회원들을 위해 서예를 하고 있는 목교수

내 일생에 있어서 세계불교가 참으로 현실할 일이라, 믿고 쉬지 않고 달려 왔다. 몸이 아파도 이겨 극복해 헤쳐 나왔다. 그리고 일어나, 또 행진 행진이었다. 지금 머뭇거리기가 있다 해도, 나는 부처님처럼 그 걸음을 멈출 수 없다.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후보자들 중 누가 더 책임자인지 선거를 통해 선택하는 것은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선거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국민이 희망과 꿈을 갖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중립을 지키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민께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 첫째,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실현에 우리 모두 동참합니다.
둘째,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니다.
셋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아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합니다.
넷째,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눈 감아 주지 말고 서로 경계하고 지적하여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는,

- 첫째,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흑색선전으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말고 정당당당하게 경쟁합니다.
둘째, 선거 때마다 발생되고 있는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합니다.

2012. 11. 9.

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 공동대표의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동대표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동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공동대표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공동대표 최근덕 (유교 상관관장)
공동대표 임운길 (천도교 교령)
공동대표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